

기획
해외연구소개

신현아 | '소녀'들의 이야기의 행방
: 다자이 오사무 「여학생」 「치요조 와 그 주변

‘소녀’들의 이야기의 행방*

: 다자이 오사무 「여학생」 「치요조 와 그 주변

나카야 이즈미(中谷いづみ)**

옮김: 신현아

감수: 다지마 테즈오(田島哲夫)

1. 감상해야 할 ‘타고난 좋은 점’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후 ‘민중’이나 ‘대중’은 접속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총력전 체제 하의 작품 내에서 작가에 의해 타자화된 표상으로서 발견되고 포섭되었다. 이 과정은 ‘문학’을 대리보충하고, 전시 담론을 보강해가는 형태이기도 했다.¹⁾ 이처럼 ‘문학’은 주변적 필자를 포섭함으로써 ‘민중’ ‘대중’의 대변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갔으나, 이는 주변적 필자들을 ‘원시적’인 존재로 표상하는 것으로서 성립된다. 레이 초우는 ‘사회적으로 억압당한 계급—특히 여성—’이 ‘원시적인 소재’로서 ‘새로운 문학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²⁾ 따라서 본 논

* 본 논문은 中谷いづみ, 『その‘民衆’とは誰なのか:ジェンダー・階級・アイデンティティ』, 靑弓社, 2013의 제 3장인 「‘少女’たちの語りのゆくえ: 太宰治 「女生徒」 「千代女」とその周辺」을 옮긴 것이다.

** 나라교육대학 교수

1) (역주) 1930년대에 ‘민중’과 ‘대중’의 표상을 통해 문학장과 전시담론을 보강해가는 과정에 대한 나카야 이즈미의 논의는 나카야 이즈미, 『그 ‘민중’이란 누구인가: 젠더·계급·아이덴티티』, 세이큐사, 2012의 1장 「‘민족’의 ‘역사성’과 ‘민중’의 ‘보편성’: 시마키 켄사쿠 『생활의 탐구』, 히노 아시헤이 『보리와 병대』』와 2장 「주변을 표상하는 필자들: 토요다 마사코 『글짓기 교실』, 히노 아시헤이 『보리와 병대』』를 참조하라.

문에서는 ‘소녀’가 ‘원시적인 소재’로서 발견되어, ‘문학’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역학을 좇고자 한다. 성인 남성이 주가 되는 ‘문학’의장에서, ‘여성’과 ‘아이’라는 이중의 편차를 안은 ‘소녀’는 어떻게 이야기되었고 표상되었는가.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글짓기³⁾를 하는 소녀를 제재로 하여 총력전기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소설 『치요조』와 어느 소녀의 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여학생을 다루고, 그 바탕이 된 일기의 서술이나 글짓기에 대한 평가담론 등과 비교하면서 분석해나갈 것이다. 하여 소녀들의 글에서 ‘여성성’이나 ‘원초성’을 발견하고, 주변화하며 가치를 매기고, 혹은 깎아내림으로써 젠더 카테고리가 재생산되어 가는 과정과 그 목소리를 전유하여 ‘문학장’의 구성요소로 삼는 남성들의 장을 되묻고자 한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쿄아사히신문》 1938년 9월 30일 자의 『문예시평』에서, “문학자를 후대하기보다 먼저 만민의 말과 문자를 애육”하고 싶다고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이다. 그는 이 영역의 사례⁴⁾로 부인잡지에서 소품지도나 『모범글짓기전집』의 편찬을 들고 있다. 1939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중앙공론사에서 간행한 『모범글짓기전집』은 시마자키 도손, 가와바타 야스나리, 모리타 타마 세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하여 전국에서 응모한 글짓기를 추려, 전 6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당시의 문단에서 그야말로 대가였던 도손, 문단에 새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역할을 맡고 있던 가와바타, 그리고 잡지 『부인공론』에서 『이시카리 소녀』⁵⁾를 연재하

2) 레이 초우, 『원시적 열정』, 모토하시 테츠야·요시하라 유카리 역, 세이토샤, 1996.

3) (역주) 여기서 글짓기는 綴方の 역어이다. 綴方은 일반적으로 ‘작문’ 또는 ‘글짓기’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1930년대에 스즈키 미에키치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서 일어난 교육운동인 ‘생활 글짓기 운동’의 글짓기를 가리킨다. 이 ‘생활 글짓기 운동’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을 모토로 하여, 눈에 보인 사물의 모양, 감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실감’을 부여하는 문체 규범이 중요시 되었다.

4)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예시평』, 『도쿄아사히신문』, 1938년 09월 30일.

5) (역주) 이시카리는 홋카이도의 지명이다. 모리타 타마가 1940년에 발표한 『이시카

고 있던 모리타 타마가 선정위원이었다는 점만 봐도 저널리스트한 기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판매 역시 ‘일종의 글짓기 붐’을 타고 ‘호조’였다고 한다.⁶⁾ 가와바타는 일본의 자랑 이라는 제목의 추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⁷⁾

담당교사와 교장의 추천을 받은 글을 모으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응모 총수가 약 2만 6천에 달하여, 내지 각 부현은 물론이고 대만, 사할린, 조선, 만주국, 지나에서 멀리는 남양이나 미국까지, 일본어가 있는 땅은 널리 빠지는 바 없었다. 정말로 태평성대의 장관이라 할 만하다. 또 나병 요양소나 맹아 학교에서도 작품을 보내왔다. 선정위원은 이 모범글짓기전집의 모든 것이 국가적, 민족적 일대사업이라는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받았으며, 이를 맡은 영광과 책임을 생각한다.

추천문이라 과장된 감이 있으나, 총 응모 수나 그 광역성 등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⁸⁾ ‘대만, 사할린, 조선, 만주국, 지나에서 멀리는 남양이나 미국’ 그리고 ‘나병 요양소나 맹아 학교’까지, 확실히 『모범글짓기전집』은 ‘만민’을 상징하는 듯 한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글짓기 붐 등을 배경으로, 다시금 ‘쓴다’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여학교를 졸업한 19세의 아리아케 시즈⁹⁾라는 여성의 일기

리 소녀」는 홋카이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한 소녀가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6) 나메카와 미치오, 『해설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사의 잔향』, 동양관출판사, 1993, 51-58쪽을 참조. 또한 나메카와에 의하면 실질적인 작업은 담당 편집자였던 후지타 타마오와 가와바타가 진행했다고 한다.

7) 가와바타 야스나리, 「일본의 자랑」, 『중앙공론』, 중앙공론사, 1939년 6월자에 게재된 광고.

8) 글짓기와 식민지에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카와무라 미나토, 『작문 안의 대일본제국』, 이와나미서점, 2000을 참조.

9) (역주) 아리아케 시즈(有明 淑)는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소설인 「여학생」의 소재가 된 일기를 쓴 필자이다. 1919년 미생물학자인 아리아케 분키치의 차녀로 도쿄에서 태어났다. 1936년에 성녀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이토 양재학교에 진학하면서, 다

에는, 무대 『글짓기 교실』¹⁰⁾에 대한 감상이나 아마모토 야스에가 연기한 토요다 마사코에 대한 공감, 그리고 “쓰고 싶다”는 의욕이 적혀 있다.¹¹⁾

이제 와서, 『글짓기 교실』을 느긋하게 떠올려 본다. 「나니와부시」, 「하다시 타비」¹²⁾의 기본을 잘 연기해준 야스에에게 호감이 생긴다. 십오륙 세 아가씨

자이 오사무 문학을 읽게 된다. 그리고 1938년 4월 30일에서 1938년 8월 8일까지 쓴 일기를 다자이 오사무에게 보낸다. 다자이 오사무는 1939년에 이 일기를 하루의 사건으로 압축한 형태로 단편 『여학생』을 써서 『문학계』 4월호에 발표한다. 아리아케 시즈는 다자이 오사무로부터 『문학계』 4월호와 단행본 『여학생』을 증정받는다. 그리고 그녀의 일기는 2000년 2월에 아오모리현 근대문학관에서 「자료 제 1집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공간되었다.

- 10) (역주) 스즈키 미에키치를 중심으로 하여 193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생활 글짓기 운동이라는 교육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스즈키 미에키치는 아동 잡지 『붉은새』의 주간으로써 오랫동안 글짓기의 지도를 맡아왔다. 그리고 그 성과를 『글짓기 독본』으로 정리하여 1935년에 중앙공론사에서 간행한다.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상권에는 『붉은새』에 게재된 글짓기 작품 44편, 하권에는 교육이론을 실었다. 스즈키의 생활 글짓기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소학교 교사 오오키 겐이치로와 시미즈 코우지는 자신이 지도한 혼다 소학교 4학년 토요다 마사코의 글짓기 26편을 포함한 『글짓기 교실』 (중앙공론사, 1937년)을 출판한다. 이 『글짓기 교실』은 스즈키 미에키치의 『글짓기 독본』의 속편으로서, 상권은 오오키 겐이치로가 지도한 토요다 마사코의 글짓기를 중심으로 한 「개인지도편」, 하권은 시미즈 코우지의 「학급지도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글짓기 교실』은 대중의 생활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솔직하게 그려내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으나, 스즈키 미에키치가 1936년 6월에 사망하고, 동년 10월에 그가 주간으로 있던 『붉은새』가 폐간된 직후에 출간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출간 1년 후인 1938년 3월, 신 츠키지 극단에 의해서 무대화된 『글짓기 교실』(주연: 아마모토 야스에)이 총 약 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을만큼 기록적으로 흥행하게 되면서, 『글짓기 교실』도 베스트셀러가 된다. 특히 극본으로 각색될 때, 「개인지도편」에 수록된 토요다 마사코의 글짓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필자인 토요다 마사코 역시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38년 8월에는 토호사에서 아마모토 카지로 감독의 영화 「글짓기 교실」이 개봉되었다. 또 토요다 마사코 본인의 낭독 레코드도 발매될 만큼 『글짓기 교실』은 ‘글짓기’와 ‘글쓰는 소녀’의 붐을 일으켰다.
- 11) 아와모리현립도서관 아와모리현근대문학관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 (『자료집』 제 1편), 아와모리현립도서관 아와모리현근대문학관, 2000년. 또 『글짓기 교실』과 『여학생』의 관계를 계급의 문제나 사실과 픽션이라는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타키 구치 아키히로의 「어느 소녀의 ‘나 혼자 하는 수다’가 활자가 되기까지: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와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 (2004년 3월)이 있다.

의 동작의 세심한 곳까지 나타내고 있어서 기뻐다. (생략) 수도꼭지를 트는 부분은 뭔가 부자연스러웠지만, 그 태도의 아기자기함에는 감탄하고 말았다. 「하다시타비」에서, 눈 속에서 친구에게 “이것 봐, 내 장화, 이거야”라고 발을 들어 보여주는 부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사코의 기분을 자신의 어린 시절, 어느 때인가, 맛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보았다. (생략)

이 잡기장, 어제 사온 것이지만, 그 뒤로는, 시중, 무언가 좋아서 견딜 수가 없다. 청소하는 것도, 식사 후에 정리할 때도, 전차에 타고 있을 때도, 즐거운 기분이 한 가득이다. 이상하지만, 자부심이 넘치는 듯 한 뿌듯한 기분. 일하는 것이 즐겁고 힘이 넘친다.

뭔가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잡기장 한 권으로, 벌써 해결된 것 같아서, 이 노트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온다.

일기 외에 써본 일은 여학교 시절 글짓기 외에는 없다.

도대체 이렇게 조잘조잘 써서 어찌려는 걸까. 이런 우스운 공상을 할 때도 있다. 이걸 잔뜩 써서 싸구려 잡지라도 좋으니, 실리면 좋겠다아—.

신 츠키지 극단의 초연은 1938년 3월이며, 38년 4월 30일에 적힌 이 문장은 상연 후 이른 시기에 적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걸 잔뜩 써서 싸구려 잡지라도 좋으니, 실리면 좋겠다아—」라는 시즈의 말에는, 진심이 아니라도 토요다 마사코처럼 저널리즘을 통한 데뷔를 꿈꾸는 모습이 살짝 엿보인다. 그 날 떡을 쌀도 곤란할 만큼 가난한 가정의 아이를 일약 시대의 총아로 끌어올렸던 ‘글짓기’는, ‘쓰는 것’인 동시에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행위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한센병 환자의 검진과

12) (역주) 나니와부시(浪花節)는 판소리와도 비슷한 일종의 구연예능으로 로쿄쿠(浪曲)라고도 한다. 하다시타비는 야외에서도 신을 수 있도록 밀창을 두껍게 댄 버선을 말한다. 스즈키 미에키치의 『글짓기 독본』(중앙공론사, 1935년)에 수록된 토요다 마사코의 세 편의 글(「화재」, 「하다시타비」, 「닭」) 중 한 편의 제목이다.

수용의 기록을 썼던 오사와 마사코의 『작은 섬의 봄』(나가사키 서점, 1938년)과,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실천을 엮어낸 히라노 후미코의 『여교사의 기록』(니시무라 서점, 1940년), 아마추어 필자로서 주목받았던 노자와 토미코¹³⁾의 『벽돌 여공』(제1공론사, 1940년) 등이 등장했다. 그리고 문학을 좋아했던 아리아케 시즈는 3개월 남짓 계속 써온 일기를 다자이 오사무 앞으로 보낸다. 다자이는 그 일기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발췌, 개편, 재구성하여 ‘소녀’의 하루를 그린 내적 독백체 소설로 다듬어, 『문학계』(1939년 4월, 문예춘추사)에 발표했다. 이것이 「여학생」이다.

아리아케 시즈가 ‘쓰는 것’에 뜻을 두는 계기가 되었던 『글짓기 교실』의 내면을 말하지 않는 스타일은 사실 글짓기의 문체 규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토요다 마사코’라는 필자의 속성으로 인지되어 왔다.¹⁴⁾ 따라서 그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법한 단순한 내면을 가진 필자로 여겨져 왔다. 가와바타는 이러한 수용의 특징을 민감하게 짚어가며, ‘여성성’의 문제와 결부시켰다. 그는 “토요다 마사코씨의 글짓기 교실”의 재미는, 이 아이의 성격이나 처지에 의한 바도 조금 있다.”고 하면서, 그 “문학적 재능의 희유한 드러남”¹⁵⁾에 주목한다. 그리고 작품을 읽고서, “작자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쓰여진 글의 느낌은 남지 않고, 토요다 마사코라는 소녀의 느낌이 웬지 모르게 남는다.”고 하여,

13) (역주) 노자와 토미코(野澤富美子)는 일본의 작가로 1921년 2월 13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났다.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공으로 일했지만, 몸이 약해 장기간 지속하지 못한다. 19세에 단편소설 「가까운 이웃의 십 개월」이 『호토토키스』 1940년 4월호에 게재되어 데뷔하게 된다. 이후 단편소설 「벽돌여공」이 『공론』(제1공론사) 1940년 5월호에 게재되고, 곧바로 제1공론사에서는 이러한 작품을 모은 단편집 『벽돌여공』을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된다. 『벽돌여공』은 병약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공으로 일하는 한 소녀의 시선에서 쪽방 주민들과의 교류를 그리는 등 하층계급의 생활을 생생한 필치로 묘사했다고 평가받았다.

14) (역주)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카야 이즈미, 『그 ‘민중’이란 누구인가: 젠더·계급·아이덴티티』, 세이류사, 2012의 2장 「주변을 표상하는 필자들: 토요다 마사코 『글짓기 교실』, 히노 아시헤이 『보리와 병대』」를 참조.

15) 가와바타 야스나리, 「성공한 조기교육: 토요다 마사코의 「오야마다 산고로尾山田三五郎」, 『도쿄아사히신문』, 1938년 11월 30일.

그 “독후의 인상”을 “완전히 기괴할 정도의 ‘공백’”¹⁶⁾이라 말한다. 즉가와바타는 글짓기의 이야기 규범에 의한 효과를 명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독자의 상상에 맡겨졌던 복잡함을 결여한 내면과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필자상의 공허함에 반응했던 것이다.¹⁷⁾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을 “무릇 뛰어난 문학에는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하여, 문학작품이 “독자의 마음에 남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작자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가와바타가 토요다의 작품을 모두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부인공론』의 소품란 「심사평」에서, 그는 토요다 마사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¹⁸⁾

토요다 마사코라는 소녀가 천재인지, 장래 훌륭한 문학자가 될지는 오히려 쓸데없는 문제이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문장을 통해 어른은 자신의 혼의 귀향을 생각해야만 한다. 기악 등과 달리 문학의 초기 교육적(이라는 말은, 스즈키씨 등의 글짓기교실을 두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인 재능이나 소질은 성숙하기가 훨씬 어렵다. 또 ‘셈법’처럼 정직한 필법을 계속 지키는 것도, 어른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이 소녀도 15세의 여공이라면 더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도 움트려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셈법’은 문학적으로는 일면 너무 정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문장에 드러난 것처럼 진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시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16)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의 허구에 대하여」, 『문예춘추』, 문예춘추사, 1939년 2월.

17)츠보이 히데토는 토요다 마사코의 글짓기의 ‘공허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순수화된 자기 표현인 것에 더하여, 그 자신 자체가 투명한 표상으로서 기능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츠보이 히데토, 『감각의 근대』, 나고야대학출판회, 2006, 368 쪽) 그러나 이 ‘순수화된 자기 표현’이 가리키는 ‘공허함’ 이미지는 글짓기의 문체 규범이 낳은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18)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정평」, 『부인공론』, 중앙공론사, 1937년 12월.

가와바타는 “이미 이 소녀도 15세의 여공이라면 더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도 움트려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라고 지적하여, 글짓기 문체 규범의 특징을 예민하게 포착했다. 그는 토요다의 작품을 “어른”의 “혼의 귀향”으로 위치 지으면서, 동시에 그 소질은 “성숙하기가 훨씬 어렵”고, “어른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말한다. 즉 토요다 마사코는 “성숙” 이전이지만, 그렇기에 “혼의 귀향”과 같은 문장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놓칠 수 없는 것은, 가와바타가 토요다의 작품을 평할 때, “어린 아이같은 것” “여성적인 것”¹⁹⁾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점이다. 가와바타는 이 “어린 아이같은 것” “여성적인 것”을 “예술”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한편, ‘문학’의 대극에 자리매김을 한다. 가와바타는 「문학의 허구에 대하여」(문예춘추, 1939년 2월, 문예춘추사)에서, 토요다의 작품에서 “문학의 원형, 또 문학의 출발점이라고도 보아야만 할 것이 가진 건강”을 보았고, “글짓기”를 하는 “전국의 아이”들의 “말을 엮어 쓰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에 있는 ‘착함’이 가슴을 울린”다고 하였다. 또한 가와바타는 “이 생각은 여성이 쓴 글을 선정할 때도 거의 같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쿠타카와상이나 「일본소설대표작전집」이나 문예시평을 위해 같은 동료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은 적잖이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부인공론」이나 「신여원」의 여성의 투서를 읽는 것은 즐겁다. (중략) 그것이 실려 있는 근소한 지면은, 부인잡지의 어떤 지면에 비해도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다고 나는 믿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성의 타고난 좋은 점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학이 되지는 않는다. 문학 이전의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직업 작가의 문학이란 어떤가. 타고난 좋은 점이 많고 많아서, 그저 쓸데없는 걸 치레 투성이일 뿐이지 않은가. (중략) 미숙한 여자의 투서를 읽고, 이런 식으

19) 가와바타 야스나리, 「성공한 조기교육」

로 즐기고 있는 것은 나로써도 서글프다고도 생각하기도 한다. 그건 아마 문학의 병으로 연애도 생활도 잃어버렸던 인간이 저 멀리 하늘에 떠다니는 듯한 여성적인 것에서 간신히 위안을 찾아내는 꼴일 것이다.²⁰⁾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문학의 병”이, 토요다의 작품에서 찾아내었던 “건강”에 대치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와바타는 “쓸데없는 걸치레”의 대극에 있는 “건강함”을 가진 “글짓기”나 “여성의 투서”를 “문학이전”의 장소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문학 이전’에서 “타고난 좋은 점”을 찾아냄으로써, “어린 아이 같은 것” “여성적인 것”을 원시적인 것으로 보고, 마치 그것이 “어린 아이”나 “여성”의 속성인 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의 병으로 연애도 생활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것” “여성적인 것”은, “문학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안”하는 것이 된다. 즉 “어린 아이 같은 것” “여성적인 것”을 가진 작품군의 필자들은 “문학”에서 절단되어 원시화 되면서, “문학 이전”이라는 장소에 그대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가와바타의 시선은 예를 들어 『신여원』의 콩트란에 대해 “여성작가의 양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이 정도의 문장은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정위원의 염원이다”²¹⁾ 라고 쓴 것에서도 알아챌 수 있다. 가와바타는 “가장 세련되고, 또 성숙한” 작품을 뽑지 않고, “기교가 미성숙한 것”을 뽑는 자세가 “선정위원이 늘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라고 하며, “문장의 기술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위험하다”²²⁾고 경계한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 필자들을 ‘미성숙’한 채로 머물게 하는 태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신여원』의 투서를 중심으로 상세한 분석을 한 오다이라 마이코는 이처럼 문학장에서 여성에 대해 울타리를 치는 것은 전시 하에 남성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서의 여성 노동을 이야기하는 논리에

20)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의 허구에 대하여』

21) 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정평』, 『신여원』, 실업지일본사, 1939년 4월.

22) 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정평』, 『신여원』, 실업지일본사, 1940년 2월.

서도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문학이라는 영역 확보의 매개로 간주되어 ‘변치 않는 문학’ 이미지의 보존에 투입되면서도 그녀들 자신의 활약의 실현은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³⁾ 즉 ‘문학’에 인접하면서도 ‘문학’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로서 여성 필자들을 위치시키는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된 여성의 고뇌를 그렸던 소설 「치요조」(『개조』 1941년 6월, 개조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2. ‘무심코’ 쓰는 것— 다자이 오사무 「치요조」

치요조」는 어린 아이 무렵에 문학적 재능이 기대되었던 19살의 가즈코가 전혀 글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을 한탄하며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1인칭 소설이다. 『글짓기 교실』의 필자인 토요다 마사코를 떠올리게 하는 ‘테라다 마사코’나 『벽돌 여공』의 필자인 노자와 토미코를 연상시키는 ‘가나자와 후미코’, 그리고 생활 글짓기 운동을 주도한 『붉은 새』의 스즈키 미에키치와 겹쳐지는 『파랑새』의 ‘이와미 선생’ 등, 당시의 독자에게는 쉽게 이해될 법한 암시가 삽입되어 있다.²⁴⁾ 실제 「치요조」가 발표된 다음 달에 “『벽돌여공』의 노자와 토미코나, 『글짓기 교실』의 토요다 마사코를 풍자한 재기발랄한 소설”이라는 평²⁵⁾이 실린 것처럼 동시대 현상의 풍자나 패러디로 읽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야기의 발단은 가즈코가 열

23) 오다이라 마이코, 「문학의 위기와 ‘주변’의 소환: 여성의 집필행위와 다자이 오사무·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녀환상의 사이」, 일본문학협회편 『일본문학』, 일본문학회, 2008년 4월.

24) 동시대 상황을 좇으며 「치요조」를 논한 이하라 아야는 ‘테라다 마사코’나 ‘가나자와 후미코’라고 하는 당시의 ‘치요조들’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받고 괴로워하는 가즈코가, 최후에는 그와 결별하고 ‘자립’을 선언하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다. (이하라 아야, 「다자이 오사무 「치요조」론: ‘나는 치요조가 아닙니다」, 『오즈마국문』, 오즈마여자대학국문학회, 2004년 3월.

25) 이시다 에이지, 「6월의 소설」, 『신조』, 신조사, 1941년 7월.

두 살 때, 글짓기가 잡지 『과랑새』에 당선된 일이다. 다음의 인용은 두 번째 당선되던 때를 돌이켜보는 가즈코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번에도 가시와기 외삼촌 추천으로 ‘가스가 초’라는 작문을 투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투고란이 아니라 잡지 제일 앞 페이지에 커다란 글씨로 게재되었습니다. ‘가스가 초’라는 작문은 이케부쿠로에 사시던 이모가 네리마 가스가 초로 이사를 가시면서, 딸도 넓어졌으니 꼭 한 번 놀러 오라고 하시기에, 6월 첫째 주 일요일에 고마고메 역에서 전차를 타고 이케부쿠로 역에서 도조 선으로 갈아탄 후 네리마 역에서 내렸는데, 이리저리 둘러 봐도 온통 발뽀이라 가스가 초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발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데는 모른다고 하기에 울고 싶어졌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카에 빈 사이다 병을 가득 싣고 걸어가는 마흔쯤 돼 보이는 남자 분께 여쭙보았더니, 그분은 쓸쓸한 미소를 머금고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신 후에 얼굴에서 푹푹 떨어지는 땀방울을 더러운 쥐색 타월로 닦아내시면서, 가스가 초, 가스가 초 하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가스가 초는 아주 멀어요, 저기 저 네리마 역에서 도조 선을 타고 이케부쿠로 역까지 가서, 거기서 전차를 타고 신주쿠 역으로 간 뒤 도쿄행 전차로 갈아타고, 스이도바시라는 곳에서 내려서, 라고 꽤 먼 길을 어수룩한 일본어로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혼고 가스가 초로 가는 길인 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그분이 조선 분이라는 것도 금세 알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한층 더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도 귀찮아서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 이 조선 분은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제게 가르쳐주시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대로 네리마 역으로 가서, 다시 도조 선으로 갈아타고,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예 혼고 가스가 초까지 가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쩐지 슬프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솔직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잡지 제일 앞 페이지에 커다란 활자로 인쇄되

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98-199쪽)²⁶⁾

실제로 『붉은 새』에 실렸던 생활 글짓기 작품을 읽은 적이 있다면, 글짓기의 내용을 설명하는 가즈코의 이야기 자체에 그 생활 글짓기의 문체가 섞여있다고 느낄 것이다. “리어카에 빈 사이다 병을 가득 싣고 걸어가는 마흔쯤 돼 보이는 남자 분께 여쭙보았더니, 그분은 쓸쓸한 미소를 머금고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신 후에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더러운 쥐색 타월로 닦아내시면서” 등은 주변적인 정보를 더하여 장면을 상상하기 쉽게 하는 글짓기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글짓기의 문체가 필자의 ‘소박함’에서 유래한다고 간주되던 것에 미루어본다면, 다자이 오사무가 그 문체를 모방하여 쓴 것 자체를 풍자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가즈코가 자신의 글에 대한 이와미의 선정평에 대해 “제 작문보다 두세 배나 더 긴 감상문”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읽고 씩씩한 기분이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가즈코는 “선생님이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와미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마음도 아름답고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 그녀는 담임인 사와다 선생이 글짓기의 시간에 잡지를 갖고 와서, 심하게 흥분하면서 야단스러운 목소리로 칭찬해주었던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도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엉터리 작문을 써서 모두에게 비웃음을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울까 하는 걱정만 들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또 사와다 선생님도 정말로 그 작문을 읽고 감탄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제 작문이 잡지에 커다란 글씨로 인쇄되어 유명한 이와미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 그런 이유로 그렇게

26) 다자이 오사무 『치요조』의 인용은 『다자이오사무전집5』, 치쿠마서방, 1998을 따른다. (이 번역본에서는 다자이 오사무, 정수윤 역, 『다자이오사무전집4 신렘릿』, 『치요조』, 도서출판b, 2013을 따르되, 원문에 맞게 수정하였다. 쪽수는 본문에 명기한다.)

흥분하셨을 거라는 점이 어린 마음에도 대충 짐작이 갔기에, 한층 더 외로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200쪽)

이와미가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즈코는, 이와미에게 칭찬 받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그렇게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글짓기가 낳은 필자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가 신경이 쓰여, 주변의 반응에 당황하는 가즈코의 모습이다. 학교의 친구들은 “이치요²⁷⁾ 씨라느니, 무라사키 시키부²⁸⁾이라느니, 심술궂게 비웃는 말투”로 가즈코를 부르고 “상스럽게 야유”한다. 이는 가즈코에 대한 질투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는 동시에 “선생님이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에서 보듯 위선성에 대한 조롱으로도 해석된다. 또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께도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장난을 치면서, 집안을 늘 웃게 만들었”던 가즈코는 글짓기가 당선된 이후 “갑자기 겁쟁이에 기분 나쁜 아이”가 되어, “엄마와 말다툼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즉 필자의 ‘소박함’이나 ‘순진함’을 칭송하는 글짓기 평이 오히려 주변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는 계기가 되어, ‘소박함’이나 ‘순진함’을 잃게 하고 말았다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 후 글짓기를 하지 않게 된 가즈코는 소학교를 마치고 여학생으로서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학교 3학년 때 이와미로부터 온 편지가 다시 그녀의 주위를 소란스럽게 한다. 부친 앞으로 도착한 그 편지는 “이대로 재능이 묻혀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 더 써보게 하면 어떻겠느냐, 발표할 잡지를 알아봐주겠다” 라

27) (역주) 히구치 이치요(樋口 一葉)는 일본의 소설가이다. 1872년 5월 2일 출생하여 1896년 11월 23일 사망했다. 어릴 적부터 문학적 재능이 돋보여 와카와 고전문학을 배웠다. 그리고 16세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소설로 난관을 타개하고자 한다. 하여 20세부터는 나카라이 토스에게서 소설을 사사받게 된다. 20세에 『밤 벚꽃』을 발표하고, 23세에 『키 채보기』, 『탁한 강』, 『십삼야』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극찬을 받는다. 그러나 이듬해 폐결핵으로 사망한다.

28) (역주) 헤이안 시대 귀족의 딸로서 『겐지모노가타리』의 저자이고, 궁중생활을 서간문 형식으로 쓴 『무라사키 시키부 일기』를 썼다.

는 취지로 씌어져 있었다. 아버지와 가즈코는 그것이 가시와기에 사는 외삼촌이 꾸민 일로 짐작하여 부정적 태도로 대한다. 그렇지만 가시와기 외삼촌의 누나인 어머니는 “가즈코가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나니, 어쩐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라고 말하며, 재능을 키우게 해주지 않겠는지 아버지에게 묻는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하의 인용이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성장한다 한들 뭐가 되겠소. 문학적 재능이 있는 여자아이라니, 한순간 재능이 있네 어찌네 하며 들떠 있다가, 일생을 완전히 망칠 거요. 가즈코도 무서워하고 있고. 무릇 여자아이는 평범하게 시집가서,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지. 자네들은 가즈코를 이용해서 각자 허영과 공명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고 가르치듯 말 씀하셨습니다. (203쪽)

아버지는 사립대학의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글짓기가 당선되었을 때도 “그런 자극적인 일을 시켜선 안 된다”라고 삼촌을 꾸짖었다고 한다. 이 삼촌은 소설을 많이 읽어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소설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나쁜 친구들을 만나 대학을 중도에 그만둔다. 지금은 구청에서 일하면서 과음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올 때마다 가즈코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 텍스트에서 아버지와 가시와기의 삼촌은 대조적인 존재이며, 분명하게 아버지는 삼촌보다도 사회적 양식을 갖춘 것처럼 설정되어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말에 대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월급에 대한 것이나, 우리 옷값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것들을 매우 노골적으로 말”하는 전개는, “가즈코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아버지의 분노가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한순간 재능이 있네 어찌네 하며 들떠 있다가, 일생을 완전히 망칠 거”라는 아버지의 견해도, 여성 필자들의 작품은 ‘문학 이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담론을 전제로 하면 납득이 갈 것이다. 앞서 가와바타는 “대개의 직업 작

가의 문학이란 어떤가. 타고난 좋은 점이 많고 많아서, 그저 쓸데없는 걸 치레 투성이”라고 말하며 “문학 이전”의 작품에서 “여성의 타고난 좋은 점”을 찾아내고²⁹⁾, 토요다 마사코를 “성숙하기 훨씬 어려운” 필자로 보았다. 이러한 가와바타의 심미안에 따르면, 가즈코와 같은 필자는 “한순간 재능이 있네 어찌네 하며 들떠”있을 뿐 장래성을 내다볼 수 없는 필자이다. 부친은 이러한 ‘쓰는 것’의 찰나성에 비교하여 “평범하게 시집가서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든다. 이 ‘결혼’과 ‘문재에 의한 활약’이라는 대립은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나자와 후미코”라는 18세의 아가씨가 쓴 문장이 “어느 훌륭한 소설가의 책보다도 훨씬 많이 팔려서 일약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자극되어 흥분하는 어머니와 가시와기의 외삼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대립이 나타난다.

어머니는 크게 흥분하시다가도 금방 식는 성격이셔서, 그날의 흥분도 한 달 정도는 계속됐지만, 그 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시와기 외삼촌만은 차분해지시기는커녕 이번엔야말로 가즈코를 제대로 한 번 소설가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했다며,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즈코는 소설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여자야, 이렇게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좋은 아이는 도저히 평범한 아내가 될 수는 없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술의 길에서 정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아버지가 안 계시는 틈을 타서 큰 소리로 어머니와 저를 타일렀습니다 (210)

가시와기의 외삼촌은 가즈코에 대해 “이렇게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좋은 아이는 도저히 평범한 아내가 될 수 없”다면서, “소설가”라는 “예술의 길에 정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어머니도 역시 “하지만 그러면 가즈코가 불쌍하지 않니”라고 쓸쓸한 듯이 웃으며 말했지만, 아무 것도 쓸 수 없게 된 것을 계속 한탄하는 지금의 가즈코는

29)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의 허구에 대하여」

“삼촌 말씀이 옳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쓴다. 여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빠르게 변해버린 듯 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즈코는, 지금의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루하루가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것도, 화단을 가꾸는 것도, 거문고 연습도, 동생을 돌보는 것도, 모든 게 다 바보 같고, 부모 몰래 경박한 소설에 푹 빠져 읽고 있습니다. 소설이란 것에는 왜 이렇게 남의 비밀스런 악행만 가득 쓰여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음란한 공상을 하는 불결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언젠가 외삼촌이 가르쳐주신 대로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써서 신께 용서를 빌고 싶지만, 제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재능이 없는 것입니다. (211)

“경박한 소설”을 탐독하며, “음란한 공상을 하는 불결한 여자”가 된 ‘나’는,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써서 신께 용서를 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용기도 재능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즈코는 “불결한 여자”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습득한 문체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본 그대로의 사물과 주변을 묘사하고 전달하는 식의 『붉은 새』의 글짓기는 단순한 내면을 나타내는 문체 규범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색이나 사고를 떠안은 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비밀스런 악행”만을 쓴 “경박한 소설”을 탐독하고 “음란한 공상”을 하게 된 가즈코가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쓰고자 하면, 글짓기의 문체 규범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문체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녀는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종결부에서 모친은 “가즈코도 쓰면 잘 쓸 수 있는데”라며, 작품명이기도 한 카가의 치요조³⁰⁾ 전설을 이야기하며 혼자 감동한다. 치요

30) (역주) 치요조는 에도시대 중기의 하이쿠 시인이다. 카가(加賀) 출신으로 1703년에 태어나 1775년에 사망하였다.

조는 처음으로 스승을 찾아뵙지만 작품이 좋다는 말을 좀처럼 듣지 못한다. 하여 밤새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날이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무심코” 한 구절을 읊자, 그제서야 스승이 “치요조, 드디어 해냈구나!”하고 칭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치 채지 못했지만, 바로 “무심코”야 말로 글짓기에 적합한 상태이며, 지금의 가즈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저는 치요조가 아닙니다”라는 가즈코의 말은, “음란한 공상”이나 자의식에 의해 “무심코”라는 경지를 얻을 수 없게 된 가즈코의 절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치요조라는 소설은, 토요다 마사코나 히노 아시헤이처럼 ‘원초성’을 가진 필자가 봄이 된 시대에 대한 강렬한 풍자로도 읽힌다. 다만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글짓기의 문체 규범에서 일탈한 내면을 갖게 된 가즈코가 자신을 “음란한 공상을 하는 불결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점이다. 글짓기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면, 가와바타가 15세가 된 토요다 마사코에 대해서 “더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도 움트려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라고 서술한 것처럼 어린 아이 같은 것으로부터의 탈각을 나타내면 좋을 터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음란한 공상” “불결한 여자”라는 섹슈얼리티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쓰이는 것일까. 애초에 「치요조」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여자란 역시 쓸모가 없어요. 여자 중에서도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저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두의 이 문장, ‘결혼’과 ‘예술의 길’이라는 대립의 반복, 그리고 “불결한 여자”라는 자기서사 등, 「치요조」에서는 ‘글짓기’를 할 수 없는 ‘나의 현 상황’을 ‘여성성’의 문제로 회수하는 신호가 도처에 깔려있다. 성장해버리면 “가망이 없”어진다는 견해는, 가와바타의 말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미성숙”을 칭찬하는 당시의 수용 코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음란한 공상을 하는 불결한 여자”라는 섹슈얼한 것으로의 접

속은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실은 이 의문을 풀어주는 작품이 「치요조」보다 2년 정도 먼저 발표된 소설 「여학생」이다.

3. 「여학생」의 섹슈얼리티

1939년 4월호 『문학계』(문예춘추사)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은 아리아케 시즈가 쓴 일기를 토대로 한 것이다. 소마 쇼이치에 의하면, 일기를 썼던 당시의 시즈는 19세로 여학교를 마치고 양재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일기에 몇 번이나 나오는 아버지는 미생물학자로 2년 전에 타계하고 언니도 시집을 가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³¹⁾ 문학을 좋아했던 시즈는 1938년 4월 30일부터 그 해 8월 8일까지의 일기를 엮어 다자이 오사무에게 보낸다. 최근, 이 작품의 기반이 되었던 소녀의 일기가 간행되어, 작품의 대부분이 이 일기에 의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아오모리현립도서관 아오모리현근대문학관편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자료집」 제 1편], 아오모리현문학관협회, 2000년. 이하 『일기』로 함)

「여학생」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소녀의 내면을 그린 소설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발표 당시 『일기』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은 채 순수한 다자이의 창작 작품으로 여겨졌다. 소마 쇼이치는 「여학생」에 대해서 “실로 작품전체의 90% 가까이 일기에 의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동시대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전위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다자이 오사무가 한 소녀를 빌어 나타낸 허구의 산물”로 간주한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이토록 『일기』에 의거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된 이상, “이 작품을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려는 비장한 소원을 담은, 여학생으로 가탁한 실험적 소설³²⁾”로서 무조건 다자이의 창작 이력 속에 위치 지우는

31) 소마 쇼이치,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과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 수록, 97쪽.

32) (역주) 이 소설을 발표하기 전, 다자이 오사무는 문단에서의 평판이 좋지 못한 상

것은 역시 문체가 있”³³⁾(강조는 원문)지 않을까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를 유용해서 쓰여진 「여학생」은, 확실히 『일기』와 다른 화자의 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일기』를 여학생」으로 고쳐쓰면서 어떤 화자의 상이 나타났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³⁴⁾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

쓰고 싶다. 매일 스스로 생각한 것, 했던 것을. 사실은, 근사한, 독창적인 것을 쓰고 싶지만, 조금도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

어쨌든 쓰자. 매일 가만히 쓰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매일이 즐겁고 멋지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주 솔직하게, 언제라도, 나를 꼭 다잡고 있자. (4월 30일)

“쓰고 싶다”라는 기분이나, “쓰는 것”으로 “아주 솔직하게, 언제라도, 나를 꼭 다잡고 있자”고 하는 시즈의 마음가짐은 『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모티프이다. 이 “쓰는 것”으로 ‘솔직’하게 되고 싶다는 시즈의 바람은, 어린 시절에 “불량스럽다” 던가 “비뚤어진 아이다” 등의 말을 들었던 경험 때문에 늘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여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아가씨가 되려”(5월 15일)고 애쓰는 시즈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다. 예

태였다. 1935년에 1회 아쿠타카와상 후보에 올랐으나 낙선하자 다자이 오사무는 심사위원인 가와바타를 격하게 공격하는 글을 게재하며 설전을 벌였다. 2회 아쿠타카와 상에는 후보에 오르지 못했고, 1936년에는 『만년』으로 다시 3회 아쿠타카와상 후보에 오르나 낙선한다. 그에 다자이는 자신의 스승이자 심사위원인 사토 하루오를 비난하면서 그와의 사이도 틀어진다. 또 마약(파비날) 중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1937년에는 네 번째 동반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친다. 이후 1939년 「여학생」이 발표되자 가와바타는 다자이를 호평하게 된다.

33) 소마 쇼이치, 앞의 글, 105쪽.

34)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의 인용은 앞의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 영인본을 따른다. 또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의 인용은 『다자이오사무전집3』, 치쿠마서방, 1998을 따른다.

를 들어 집에 방문한 지인이 “핑계”가 많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일 뿐”이라서 피곤해져버렸다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싶다. 솔직해지고 싶다.” (5월 8일)는 생각이 토로된다. 시즈는 지인에 대해 “제스처가 너무 많다”라고 한 다음, 자신의 제스처에 대해 이렇게 쓴다.

그렇지만, 나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이 갖고 있다. 내 경우는, 게다가, 피바르
고 영리하게 행동한다. 정말 보기에 아니꼬워서 처치곤란이다. '나는 너무 포
즈를 취하다가 포즈에 끌려다니는 거짓말쟁이다' 따위로 말하는 것조차 하나
의 포즈니까, 움짱달짝 할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되고 싶다. 솔직하게 되고 싶다. 책 따위 읽는 건 그만뒀버려.
관념뿐인 생활에서, 무의미하고 교만하게 아는 척 하는 것 따위, 경멸이다.
하, 생활의 목표가 없느니, 더욱 생활에, 인생에, 적극적으로 되면 된다느
니, 자신에게는 모순이 있느니 없느니, 열심히 생각했다가 고민했다가 하는 모
양이지만, 너의 생각은, 감상일 뿐이에요. 자신을 위로할 뿐이라구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높이 사고 있는 것이지요. 솔직히 아침부터 밤까지 평평 먹었다
가 잤다가 하고, 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세로 있으면 좋은 것이죠. (5월 8일)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미치요 언니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조차,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했다가, 필요 없는
곳까지 해석해버리거나, 이렇게 말하면 좋을지 따위를 고민해서” “잘 보
이려고 꾸며내”버리는 것을 한탄한다. 그리고 “이제 전처럼, 술술 아무
남김없이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무얼 말하고 있는지 잘 생
각하지 않고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져버릴”까 하고 자문자답하
고 있다. (6월 4일) 하여 시즈는 타자의 시선을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에
얹어 놓으며 그 시선에 따라(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행동거지를 정
하려는 태도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부정하고, 자신에게 오로지 “자연”스
럽고 “솔직”한 것만을 부과하고자 한다. “포즈”을 부정하고, “책 따위 읽
는 건 그만뒀버려”라는 시즈의 말은, “직접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당시의

코드와 합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서 인용한 부분은 다자이의 「여학생」에도 채용되어 있지만, 「여학생」에서는 선생의 그림의 모델이 된 장면으로 바뀌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내 경우는, 게다가, 피바르고 영리하게 행동한다. 정말 보기에 아니꼬워서 처치곤란이다. '나는 너무 포즈를 취하다가 포즈에 끌려다니는 거짓말쟁이다' 따위로 말하는 것조차 하나의 포즈니까, 움짱달짝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점잖게 선생님의 모델이 되어 드리면서도, 간절하게 '자연스럽게 되고 싶다. 솔직하게 되고 싶다'고 빌고 있는 것이다. 책 따위 읽는 건 그만둬버려. 관념뿐인 생활에서, 무의미하고, 교만하게 아는 척 하는 것 따위, 경멸, 경멸. 하, 생활의 목표로 없다느니, 더욱 생활에, 인생에, 적극적으로 되면 된다느니, 자신에게는 모순이 있느니 없느니, 열심히 생각했다가 고민했다가 하는 듯해도, 너의 생각은, 감상일 뿐. 자신을 예뻐하고 위로하는 것일 뿐. 그리고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지. 아아,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나를 모델로 쓰다니. 선생님의 그림은, 틀림없이 낙선이야. 아름다울 리가 없는 걸. 안 된 일이지만, 이토 선생님 바보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선생님은, 내 속옷에, 장미꽃 자수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인용 전반은 거의 그대로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후반이다. “아아,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나를 모델로 쓰다니. 선생님의 그림은, 틀림없이 낙선이야. 아름다울 리가 없는 걸.”이라는 주인공의 말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이 외면으로 스며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 말을 그림의 모델을 하는 장면으로 배치함으로써, 내면의 갈등만이 아니라 외면도 신경을 쓰는 ‘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외면을 응시하고 있는 선생님은 그 내면에 있는 “내 속옷에, 장미꽃 자수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라는 말이 이어짐으로써, ‘나’의 외면과 내면의 낙차 속에 섹슈얼한 무언가가 잠재된 듯한 인상을 준다. 즉 『일기』에서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갈등이었던 것이, 「여학

생 에서는 외견에 대한 생각으로 결부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외견 내지 외면을 둘러싼 개념은 「여학생」이라는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날의 시즈의 일기에는, “나이를 먹고, 여자가 되어간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롭다”라는 기술 뒤에 “점점 어른이 됨에 따라,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모양, 자신의 손을 가만히 보는 일이 많”아졌고, “주위에 있는 여자, 남자를 강하게 의식해서, 곧바로 비교해 보거나, 신경써보거나, 특히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문장이 쓰여진다. 그리고 그 후, “어렸을 때의 ‘나 혼자만’이라는 시간이 적어진 것이다. ‘본능’ 이 의미를 점점 알게 되어 가는 것 같다.”(5월 5일) 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밖에 나간 날은, 피곤합니다” “시중 남을 의식하니까. 이래서야 아무리 지나도 자신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한 자각을 지니지 못할 정도로, 의식하는 것입니다.”(5월 10일) 라는 기술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을 겹쳐 생각하면, 시즈가 말하는 ‘본능’이란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에 다름 아니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른 채로 당황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한 말로 읽힌다. 그 외에도 “자신의 힘을 길러, 자신을 사랑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도덕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 스스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고, 이것이 진짜 생활이고, 이런 이상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간(우리 집의 지인, 친척관계)에서는, 나쁘게 이야기한다. 바보취급도 받는다.”(5월 15일)고 써, ‘세간’의 ‘도덕’과 ‘자신’의 ‘진실’과의 어긋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대한 곤혹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즈의 당황스러움은 다자이의 손에 의해서 다른 문맥으로 전치되어 간다. 예를 들어 5월 5일 『일기』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여학생」의 장면을 보자. 거기에는 “내 육친 중에도, 한 사람, 행실 바르고, 굳은 신념을 갖고, 이상을 추구하며,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살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친척들은 모두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한다. 바보 취급한다.”고 쓰여진다. 그러나 이 문장 앞에 “학교의 수신을 절대로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처럼 보인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릴 듣는다. 출세도 못하고, 언제나 가난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따위, 있겠냐.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패배자다.”라는 문장이 놓인다. 따라서 시즈의 당황스러움의 근본에 있는 ‘자기’와 ‘세간’의 타협이라는 문제는, ‘도덕’과 ‘세간’의 문제로 살짝 바뀌치기 되어버린다. 즉 자신의 가치관을 둘러싼 시즈의 사색은 잘려 나가버리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본능’이라는 말을 둘러싼 개변에서도 볼 수 있다. 모친으로부터 예쁜 보자기를 받은 여학생의 ‘나’는, 통학 도중의 전차 안에서 그 “귀여운 보자기”를 “살짝 쳐다봐”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시집가도 좋아”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일기』에서는 모친으로부터 예쁜 보자기를 받아, 학교에 가지고 갔다는 기술이 보이지만,(5월 21일) 그것을 쳐다봐준다면 “시집 가”도 좋다고 ‘나’가 생각하는 대목은 다자이에 의한 창작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장면 뒤에 느닷없이 “본능, 이라는 말을 마주하면 울고 싶어진다. 본능의 거대함,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힘, 그런 것이, 가끔 나의 이런저런 점으로 알게 되면,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된다.”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본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시집가는 것”인 것처럼 되어, 그 결과 시즈의 『일기』에 기술되어 있던 주변을 의식해버리는 것에 의한 곤혹은, 이성을 의식해버리는 곤혹으로 치환되어 버린다. 오다이아 마이코는 『여학생 에 나타난 ‘결혼’이 “제도라고 납득됨에도 불구하고, ‘본능’이라는 자연스러운 것인 양 살짝 바뀌치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기』에서 “자각한 여자의 양심적인 생활은, 지금 사회에서는 아직 인정받기 어렵고 갈 길이 좁은 것이 아닐까.”라고 쓴 부분을 들어, 시즈가 “남의 눈을 신경 쓴다고 하는 싫어할 만한 행위”를 “사회 탓이라고도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³⁵⁾ 즉 『일기』에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여자’이기에 도망칠 수 없는 질곡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그 근본에는 ‘사회’가 있음을 간파하는 듯한

35) 오다이아 마이코, 앞의 글.

시선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시즈의 『일기』에는 사회에서 몸 둘 바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

오늘도 버스 안에서, 주름진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유행하는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예쁘지만,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애써** 절절매는 것이, 때리고 싶을 정도로, 싫었다. 그리고 네리마에서 내려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종이연극(紙芝居)을 보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더러운 기모노를 입고 덩수룩한 더러운 머리를 빗 하나로 휘감아 올렸고, 손발도 더럽다. 얼굴도, 여잔지 남잔지 모를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쓰면서도 가슴에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 든다. 그 여자는 배가 크게 불러온 채, 히죽 히죽 웃어대면서 종이 연극을 보고 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선내나는 여자, 버스에서 본 여자도, 종이연극을 보던 여자도 똑같이 싫다. 그들과 똑같이 **나이를 먹은 게 싫다.** (생략) 내가 여자인 만큼, 여자의 아름다움에 민감하고, 속에 있는 불결함도 알고 있다.

잠자코 이 방에 있으면, **늙는 것이 못견디게 싫고 슬퍼진다.**

왜, 노인이 되어버리는 것일까. 늙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 움직이는 사회로부터,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꽃으로부터 놀이로부터, 모두 떨어져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젊으니까, 늙는 것의 어처구니없음이 견딜 수 없이 느껴진다. (중략)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허영게 세고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하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어버린다. 사회고 뭐고 없어져버린다. 아무리 책을 읽거나 써도, **현실의 사회를 따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먹고, 햇별을 쬐고 있을 뿐인 건가.** (5월 19일)

여기에 쓰여진, 버스나 전차에서 발견한 “여자”들에 대한 반감은 ‘늙는 것’에 대한 혐오에서 나온다. 나이를 먹어 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이 움직이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모임에서, 꽃에서 놀이에서, 모두 떨어져버려”, “사회고 뭐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 기피해야만 하는 대상으로서 이야기된다. 또 “주름진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유행하는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배가 크게 불러온 채, 히죽 히죽 웃어대면서 종이 연극을 보고 있”는 모습을 꺼리는 감정이 “여자”의 “불결”함과 결부되어 이야기되고 있어도,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역시 “다만, 먹고 햇볕을 쬐고 있을 뿐인 건가”라는 물음이다. 즉 “사회”에서의 위치, 관계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늙은” “여자”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어 버”려, “현실의 사회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상징으로서, 두 사람의 “여자”가 꺼림칙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여학생」에서는,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혐오의 원인도 바뀐다.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버스 안에서 기분 나쁜 여자를 봤다. 갓이 더러운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덤수룩한 더러운 머리를 빗 하나로 휘감아 올렸고, 손발도 더럽다. 게다가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는 부루퉁하고 검붉은 얼굴을 하고 있다. 게다가, 아아, 가슴이 메속메속 거린다. 그 여자는, 크게 불러온 배를 하고 있다. 가끔 혼자서 히죽히죽 웃는다. **암탉. 몰래 머리를 하러 할리우드 따위에 가는 나로서도, 이 여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오늘 아침, 전차에서 옆에 앉았던 짙은 화장을 한 아줌마도 떠오른다. **아아, 더러워, 더러워. 여자는, 싫다.** 내가 여자인 만큼 여자 안의 불결함을 잘 알아서, 이가 갈릴 정도로, 싫다. **금봉어를 만지고 난 후의 저 참을 수 없는 비린내가 내 몸에 가득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씻어도,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나도 암컷의 체취를 발산하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또 정말 그런 것만 같아서, 차라리 이대로, 소녀인 그대로 죽고 싶어진다.**

“아아, 더러워, 더러워. 여자는, 싫다.” “이가 갈릴 정도로, 싫다”라는 이야기가 삽입되고, 『일기』에서는 “종이 연극”을 보며 “히죽 히죽 웃”고 있던 “여자”가 “혼자서 히죽히죽 웃는” “여자”로 고쳐 쓰여지면서, “여자” 그 자체가 싫어 마땅한 꺼림칙한 존재인 듯이 그려진다. 또 “여자 안

의 불결함”이 “금붕어를 만지고 난 후의 어떤 참을 수 없는 비린내”나 “암컷의 체취”라는 말과 결부되어, “몰래 머리를 만지러 할리우드 따위에 가는” 자신도 또한 “암탉”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삽입되었다. 나아가 “이렇게 하루하루, 나도 암컷의 체취를 발산하게 되어 간다”고 계속 한탄하는 부분에서, 혐오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여자”의 섹슈얼리티임이 명확해진다. 즉 여자들에 대한 ‘나’의 반감은, “여자”의 섹슈얼리티를 혐오하는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묘사되는 것이다. 『일기』에서 여학생,으로의 개변을 상세하게 조사한 다카하시 슈타로는 「여학생 에서 보이는 “여자는 ~다.”나 “(자신은) ~한 여자가 되었다”라는, 이른바 “나’가 ‘여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기』에는 없는 부분이거나, 어구가 덧붙여지거나 한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³⁶⁾ 즉 여학생은 성숙한 ‘여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하는 미소지니적 이야기에 의해서,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풀어가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당황하고, 동요하는 ‘나’의 모습을 그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여 츠보이 히데토는 여학생의 이 장면에 덧붙여, “버스나 전차 안에서 동성을 관찰하는 소녀의 시선의 배후에서 텍스트가 표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춘기 소녀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성에 대한 혐오, 성숙 거부”³⁷⁾라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를 뒤집으면, 바로 ‘성’을 혐오하고 ‘성숙’을 ‘거부’한다는 환상에 의해서야만, ‘여자’와는 다른 ‘소녀’라는 존재가 발견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미소지니와 쉽게 접속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자’와 ‘소녀’는 분절되는 것이며, 텍스트에 새겨진 “소녀인 채로 죽고 싶어진다.”라는 ‘나’의 말은, 분석의 경계선상에서, 부풀어가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를 바라는 ‘나’의 비통한 부르짖음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36) 다카하시 슈타로, 「다자이 오사무 『여학생』 성립 고찰: 구상메모와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 상」, 『일본문학논총』, 토호쿠대학문학부국문학연구실, 2002년 3월.

37) 츠보이 히데토, 『성이 말한다: 20세기 일본문학의 성과 신체』, 나고야대학출판회, 2012년, 373쪽.

이러한 ‘소녀’상이, 남성 젠더화된 문학장에서 애완(愛玩)되어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쿠메 요리코에 의하면 메이지 40년대 소녀잡지에는, 다야마 카타이가 쓴 『소녀병』³⁸⁾에서처럼 전차 안에서 주인공에 의해 응시되는 여학생의 모습이 번번이 소개된다. 즉 미디어에 의해 “객체로 ‘사랑받고’ ‘선택받는’” 듯한 소녀의 존재양식이 교화되어감과 함께, “‘응시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청초하고 무심한 섹슈얼리티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⁹⁾ 이를 쫓아보면, 통학 도중의 전차 안에서 ‘응시’당하는 것을 의식하고, “시집가도 좋아”라고 까지 몽상하는 ‘여학생’인 ‘나’란, “‘응시’당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녀’에 다름 아니다. 즉 「여학생」은 ‘객체’로서 “‘사랑받는’” “소녀”의 숨겨진 내면을 1인칭 시점으로 그려낸 텍스트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마음에 드는 “작고 하얀 장미꽃” “자수”는 “아무도 모르는” “새 속옷”의 “기슴 쪽”에 놓아지고, 또 정류소에 가는 도중에 있는 “나 혼자서 찾아낸 지름길”에서는, 노동자들로부터 “입에 담기도 싫은 나쁜 말”이 퍼부어진다. 텍스트에서 성적인 것은 ‘나’의 은밀한 장소에 아로새겨지고, 시즈의 『일기』에 쓰여져 있던 당황스러움이나 곤혹의 말은 섹슈얼한 의미를 가진 문맥으로 새겨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와 “자신”에 관한 시즈의 내성적인 이야기는, 감춰진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부풀어가는 것에 당황하는, 즉 **사랑해야만 할** “소녀”의 내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재구성된다.

38) (역주) 『소녀병』은 다야마 가타이가 1907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소녀병』의 주인공인 37세의 잡지사 직원 스키타는 한 때 촉망받는 소설가였지만, 지금은 문단에서 잊혀진 소녀 취향의 작가로 조롱당한다. 스키타의 유일한 낙은 매일 출퇴근 길에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소녀들은 스키타의 집요한 시선에 의해 묘사되는 대상일 뿐, 주체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의 말미에서 스키타는 소녀들을 관찰하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몸의 중심을 잃고 기차 밖으로 튕겨나가 맞은 편 기차에 치어 죽는다.

39) 쿠메 요리코, 『구성된 ‘소녀’: 메이지 시기 ‘소녀소설’ 장르의 형성』, 『일본근대문학』, 일본근대문학회, 2003년 5월.

4. 다자이 오사무의 ‘청춘’과 ‘소녀들’의 이야기의 행방

이렇게 보면 치요조와 「여학생」은 바로 “성숙”의 도중에 있는 인물을 미소지니적 이야기의 화자로 삼아, 칭찬할만한 “소녀”라는 표상의 형성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와바타의 말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의 “미성숙”을 찬미하는 당시의 코드는, 다자이의 작품에서 여성의 섹슈얼한 “성숙”에 대한 혐오와 접촉된다. 「여학생」을 바탕으로 읽으면, 「치요조」의 가즈코가 쓸 수 없게 된 것은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미 “소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치요조」의 가즈코가 “저는, 머지않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야기를 끝맺어 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여학생」의 ‘나’는 모친에게 “안미”를 해주면서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보고, 자신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확실히 한” 것에 놀라,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침착하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건지도 모른다”고 기쁘게 생각한다. 즉 그녀는 “쓸데없는 걸치레”투성이가 되는 일 없이 “타고난 좋은 점”을 계속 간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필자들과 같은 “솔직함”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여학생」이 가와바타로부터 “여성적인 것”을 머금은 문학작품으로서 칭찬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여학생」의 ‘나’가 도달한 경지이자 획득한 “솔직함”은,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가 손에 넣은 것으로 간주된다. 즉 「여학생」에 그려진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필자의 모습과 겹쳐짐으로써, ‘다자이 오사무’의 성장의 이야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와바타는 「여학생」을 전후로 발표된 다자이의 「나태의 가루타」⁴⁰⁾ (『문예』 1939년 4월, 개조사)의 “미숙하다. 문장 하나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문장을 평하며, 「여학생」도 「나태의

40) (역주) 카루타(かるた)는 일본의 전통놀이이다. 포르투갈어 ‘카르타(cartá)’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낭독자가 시의 상구를 읊으면 경기자가 빠르게 하구가 쓰여진 카드를 찾아내는 놀이이다.

가루타도 “근대적인 자의식에 좀먹혔다” “일종의 청춘의 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⁴¹⁾

다자이씨의 청춘은, 『여학생』에서 여성적인 것으로서 노래된다. 거기에서 이 작가로서는 드물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솔직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문장 속의 여성적인 것은, 전에 다른 데서 썼던 적이 있지만, 작가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썸인 듯하다. 이것이 고갈되면 작품도 딱딱하고 말라비틀어져 버린다. 『여학생』은 물론 토노무라씨가 “한 사람의 『여학생』을 빌어 나타낸 다자이씨 그 자신의 추억이다.”라고 한 것처럼, 『여학생』을 빌려 작가 자신의 여성적인 것의 좋은 점을 나타낸 전형적인 작품이다. 이 『여학생』은 가련하고, 아주 매력이 있다. 조금은 고귀하기도 하달까. 여자의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대체로 실망하는 일이 많은 나는, 이 『여학생』 정도의 마음을 가진 아가씨도 현실에서는 대단히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다자이씨의 청춘의 허구이며, 여성에 대한 동경이다.

가와바타는 『여학생』을 “근대적인 자의식에 좀먹”힌 다자이의 “청춘”을 “솔직”하게 “여성적인 것으로서 노래”한 작품으로 간주하면서, “작가 자신의 여성적인 것의 좋은 점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칭찬한다. 또한 비슷하게 히가시 하루오(東日男)도 다자이가 『여학생』을 쓰는데 이르러 “이제 간신히 온화함의 경지”⁴²⁾에 이르렀다고 하여, “작가”가 “한 번 맞부딪치지 않는 한 어른이 될 수 없는” “고뇌”를 뛰어넘었다고 여겨 높이 평가한다. 가와바타나 히가시처럼, 『여학생』의 내적 독백을 다자이의 “청춘”에 겹쳐 보는 시선은 “자신의 분수”를 깨달아 “평정함”에 이르러,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낸 작가로서 다자이를 칭찬하는 담론을 예비하게 된다. 과거에 이쿠타카와상 낙선으로 가와바타에게 매달려 『창세기』(『신조』 1936년 10월, 신조사)를 발표하여, 사토 하루오가 “창작의 자유라는 이름

41)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과 비평』, 『문예춘추』, 문예춘추사, 1939년 5월.

42) 東日男, 『다자이 오사무 여학생』, 『문예』, 개조사, 1939년 9월.

다운 가면 아래에서 참으로 부덕한 것들을 태연히 저지르”는 “주관적으로 오만한 성격”⁴³⁾이라고 비판하고, 동반자살 미수사건이나 파비날 중독에 대해서도 백일하에 드러나 있던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의 “청춘”은, 이로써 “건강”한 “소녀”들의 일시적이고 보편적인 “괴로움”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여학생』이라는 작품은 지금 바로 그 “괴로움”을 뛰어넘은 작가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겨져 칭송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일기』에 쓰여진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5월 4일)고 하는 시즈의 말은,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의 성장을 입증하는 선언으로 바뀌 읽혀 널리 수용되었던 것이다.

『일기』에서 아리아케 시즈의 말은, 여학생의 ‘나’의 말로 바뀌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의 이야기로 전유된다. 또 글짓기의 문체 규범에 의해 엮어진 토요다 마사코의 말은 배우로 체현되어, 혹은 ‘원초적’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토요다 마사코’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후에 토요다는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⁴⁴⁾

나에게는 책이 나왔다는 것, 책이 팔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다. (중략) 신문에 나온 것은 나쁜 일은 아닌 듯하지만, 『글짓기 교실』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처럼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그녀들의 ‘이야기’는 그 당사자들을 내버려둔 채로, 각각의 이야기를 형성해 널리 수용되어갔다. “있는 그대로” 있기 위해서 자신에게 “솔직함”이나 “순진함”이라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성숙”한 필자인 채로 “문학 이전”의 장에 머물러 자신의 가치를 체현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쓰는 소녀’들— 그녀들은 섹슈얼리티에서도, 필자로

43) 사토 하루오, 『아쿠타카와상: 분노야말로 사랑의 극점 (다자이 오사무)』, 『개조』, 개조사, 1986년 11월.

44) 토요다 마사코, 『“글짓기 교실” 무렵의 일』, 『부인아사히』, 아사히신문사, 1954년 4월.

서도 “성숙”에 도달할 수 없을 때야만, 감상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 미소지니에 의한 “소녀”의 ‘원초성’을 칭찬하는 담론이 유통되는 와중에 ‘쓰는 것’을 지향한 토요다 마사코와 아리아케 시즈의 ‘이야기’는 무엇에 기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녀들을 “미성숙”한 “소녀”로서 타자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유함으로써 ‘문학’을 확장시켜온 ‘성인’ ‘남자’들의 장이, 되물어져야만 하는 대상으로서 떠오르는 것이다.

* 역자후기

나카야 이즈미의 이 논문은 1930년대 일본 문학장이 ‘글쓰는 소녀’를 발견하고 착취하면서 남성 중심의 문학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1930년대의 ‘생활 글쓰기 운동’은 ‘토요다 마사코’라는 가난한 소녀를 시대의 총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당시 연극으로 각색된 ‘토요다 마사코’의 이야기를 본 ‘아리아케 시즈’라는 소녀도 일기를 쓰며 ‘글쓰는 소녀’의 꿈을 꾸었다.

그러나 ‘글쓰는 소녀’들의 이야기는 남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장’에 의해 철저히 전유되어버린다. 다자이 오사무는 ‘토요다 마사코’의 이야기를 「치요조 로 패러디하고, 아리아케 시즈의 일기는 「여학생」으로 개작하여 발표한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속에서 토요다 마사코와 아리아케 시즈라는 ‘글쓰는 소녀’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그들은 단지 ‘순진무구한’ 가명의 ‘소녀’로 남는다. 이 ‘글쓰는 소녀’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과정은 단지 다자이 오사무 개인만이 아닌 남성 중심의 문학장 전반이 공모하는 과정이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글쓰는 소녀’들의 ‘글짓기’를 ‘어린이’라고, ‘여성적인 것’이기에 좋지만 영원히 문학에 도달해서는 안 될 원초적인 것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상 남성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고, ‘여성적 글쓰기’는 언제나 ‘글’일뿐, ‘문학’에는 미달하는 것으로써 문학장의 주변에 놓이는 이 구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문학’이라는 유통기한이 다 된 이름에 ‘여성’이라는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요다

마사코나 '아리아케 시즈'와 같은 필자들의 '글짓기'를 새로이 명명하는 일일 터이다.

이 논문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과연 '소녀'란 무엇인가이다. 이 글에서 '소녀'는 실제 토요다 마사코나 아리아케 시즈라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남성 작가들이 만들어낸 '순진무구하고 솔직하고 건강하며, 성숙과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어린 여자'라는 환영의 이름이다. 이 '소녀'는 남성 중심의 '문학장'을 치유하고 보강하는 존재로서 소환된다. 이 '소녀'라는 환영에 대한 기시감은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도 '페미니즘'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남성 중심의 '진보진영'을 구원할 존재로서의 '춧불 소녀'나 낡은 페미니즘을 일신할 '영 페미'에 대한 세대론적 구분은 환영의 '소녀'를 만들어내는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하여 1930년대 일본 문학장과 글쓰는 소녀들의 이야기의 행방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다시 지금 한국의 문학장과 페미니즘의 이야기로 돌아온다.